



광주도시공사,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광주도시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된 광주도시공사는 1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내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을 평가하여 총점 75점 이상 획득한 기관에게 재인증 자격이 부여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다양한 검진기관 협약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권범 기자



GIST, 전남 과학기술특임대사 15명 임명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 19일 학교 행정동 총장실에서 과학기술특임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임명식은 GIST와 전남권 지자체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과 전남권 지자체 과학기술특임대사로 선임된 GIST 교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10개 시·군의 과학기술특임대사로 임명된 교원은 △순천시 고광희 교수 △광양시 김형진 교수·이승현 교수·엄광섭 교수 △장성군 양성 교수·허필원 교수·김재관 교수 △고흥군 최성임 교수 △영암군 김희주 교수 △장흥군 송미령 교수·이현주 교수 △해남군 손진희 교수 △담양군 김경중 교수 △화순군 전창덕 교수 △완도군 진미선 교수 등 15명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 남구 진월겨자씨교회, 백미 기부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23일 진월겨자씨 교회로부터 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교회 관계자와 동 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백미 10kg 20포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진월겨자씨 교회 관계자는 "올 겨울 쌀 나눔으로 진월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희 남구 진월동장은 "도와주신 손길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겨울나기'가 필요한 곳,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진월겨자씨교회는 2021년 설립 이래 매년 사랑의 쌀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체육회, 민선 2기 제8차 이사회 성료

광주시체육회는 23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각종 현안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이날 이사회에는 전갑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4명, 이사 24명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3건, 의결사항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당면직 임원 변경과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종목단체 임원인준 승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 보고, 202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항, 2025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 논의로 진행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취임 후 2년 동안 임원들의 성원과 광주체육인이 하나로 힘을 모아 광주체육발전을 위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새해에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투명하게 추진해 광주체육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제6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해단식 성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임인수)는 지난 22일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제6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해단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해단식에 참석한 광주 100인의 아빠단 가족 160여명은 한해 활동영상 시청과 최우수아빠상 시상, 아빠와 함께하는 피자만들기 체험, 마술공연 관람, 패밀리랜드 미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3~7세 자녀를 둔 광주지역 아빠를 대상으로 함께육아 실천을 위한 다양한 미션 수행 및 자녀들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을 위해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동화연주회 및 복화술 인형극 관람, 시골마을 힐링체험, 애니메이션 영화 관람, 아빠 멘토링&아이 체육놀이 체험, 아빠랑 미래직업 체험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번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제6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2024년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규제혁신 성과공유회 성료

전남도는 23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규제혁신 성과공유회를 열고 국가산단에 미래 신산업 유치, 소금산업 종사자 지위 안정 등 우수사례의 개선 노하우를 시군에 전파했다. (사진)

이날 공유회는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주제로 도·시군 규제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규제혁신 우수 시군 시상,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표, 규제개혁 전문가 특강, 소통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는 광양시가 최다 규제 발굴과 현장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신안군과 해남군이 우수상을, 함평군, 고흥군, 완도군이 장려상을 받았다. 규제개선 사례발표에선 광양시가 국가산단에 미래 신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신안군이 소금산업 종사자 지위 안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개선 노하우를 소개했다. 오지현 기자



송원대, 2024 위·수탁기관 지역사회협력강화 워크숍

송원대학교는 지난 20일 광주 JS웨딩컨벤션 대연회장에서 '2024 위·수탁기관 지역사회협력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대학교육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협력'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의 기관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송원철도아카데미(운전센터·관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고흥군·해남군·곡성군·진도군), 남구 구립빛나라이린이집, 광산구 구립새솔어린이집, 전남교육청 꿈자람어린이집,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광주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가족센터

등 송원대 지역사회협력 참여기관 13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 앞서 송원대 최수태 총장과 한재호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사회협력강화 발전에 기여한 교수, 팀장, 보육교사, 팀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광주 서구청 송철 팀장과 문은아 팀장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송원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대학과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인성과 전문 인재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교통공사·하나은행, 노사민 공동 사회공헌

광주교통공사 노사는 23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과 함께 지역상생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민 공동 나눔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양 기관이 기부한 550여만원의 후원금과 위문품을 광주 서구 차오름주간보호센터와 서빛마루

시니어센터에 전달하며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반쯤 누워 게임만"... 송민호 '부실복무' 주장 나왔다

그룹 '워너' 멤버 송민호(사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 복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송민호와 함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 A씨와 B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송민호는 한번도 9시에 나온 적이 없다"며 "(공단에)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다. 출근을 했을 때도, 제시간에 온 적이 없다. 10시 넘어 나와 얼굴만 비추고 가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주장하며 "진짜 많이 왔을 때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달에 2~3번 본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쩌다 나오면 에어팟 맥스 끼고 반쯤 누워 게임만 했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작년 3월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왔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목전에 두고 디스패치가 부실 근무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의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대체복무 출근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